

External assessment 2025

---

Stimulus book

# Korean SEE

## SEE 1

### General instruction

- Work in this book will not be marked.

## Stimulus 1

안녕하세요, 세라의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이 세라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호주 여름 방학 때 가족들과 주로 한국에 가서 눈 내리는 한겨울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 덕분에 저는 명절 때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사촌 언니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언니가 올해 설 연휴에 혼자 호주로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볼 생각에 반가웠지만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부모님 댁에 모여서 송편과 떡국을 먹는 것이 한국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촌 언니는 요즘은 사람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다니며 설날을 보낸다고 설명했는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또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는 것, 한복을 입는 것,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는 것, 전통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것,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풍습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사촌 언니의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말에 따르면 아직 전통에 따라 부모님 댁에 가서 설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촌 언니처럼 혼자 여행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가족 구조와 전통이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적이고 비전통인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이 저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시대가 변함으로써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겠지만 저는 여전히 세대를 거쳐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 Stimulus 3

수미에게.

고등학교에서 너를 만난 건 나에게 정말 행운이었어. 너와 같이 보낸 많은 좋았던 시간이 졸업 후에도 많이 생각날 것 같아. 며칠 후면 기다리던 졸업이라서 기분은 좋은데 다음 달이면 호주로 가야 되기에 벌써부터 네가 많이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기 전에 너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내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이 낯설어하며 교실에 앉아 있을 때 네가 먼저 다가와서 학교 규칙과 담임 선생님이 대해서도 알려주었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줬던 것도 표현은 못 했지만 진심으로 고마웠어. 그때 나는 결심했지. 너하고 끝까지 친구가 될 거라고. 너는 또 내게 문자로 미리 과제물에 대해 알려 주곤 해서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 그런 너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누군가를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

호주 유학은 대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의 무역업을 잘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어.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고 싶어서 결정했지만 나중에는 호주의 문화와 관습도 경험하고 아버지 회사와 관련있는 호주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너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할 거라 들었어. 누구든 잘 챙기고 잘 도와주는 너에게 딱 어울리는 공부인 것 같다고 생각해.

수미야,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자주 못 보겠지만 호주에 가서 영상전화 자주 하도록 할게.

너를 항상 응원하는 친구 연주가.

